위 식을 보면 확률변수 X에 관한 주변확률분포를 구하기 위해 확률변수 Y의 값을 더합니다. 예를 들어 결합확률함수에서 확률변수 X=0의 확률분포를 알고 싶으면, X=0에 해당하는 열을 더합니다. 즉, P(Y=0)+P(Y=1)+P(Y=2) 를 더하는 것이죠. 또 확률변수 Y=1의 확률분포를 알고 싶으면 Y=1에 해당하는 행을 전부 더합니다. P(X=0)+P(X=1)+P(X=2)를 더합니다. 그렇게 각 행과 열을 더해서 얻은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Y \ X	0	1	2	$f_Y(y)$
0	$\frac{3}{28}$	$\frac{9}{28}$	$\frac{3}{28}$	$\frac{15}{28}$
1	$\frac{6}{28}$	$\frac{6}{28}$	0	$\frac{12}{28}$
2	$\frac{1}{28}$	0	0	$\frac{1}{28}$
$f_X(x)$	$\frac{10}{28}$	$\frac{15}{28}$	$\frac{3}{28}$	1

즉 X의 주변확률분포는 확률변수 X 만 고려합니다. X=0 인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(3/28)+(6/28)+(1/28)=(10/28) 인 것이죠. 지금까지는 이산확률변수에 대한 주변확률분포입니다. 연속확률변수에 대한 주변확률분포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. 다만 적분을 해야한다는 것이 좀 귀찮을 뿐이죠.